

돼지 질병 방역체계를 강화하자



박 남 용 교수
(전남대 수의대 병리학교실)

며칠전 대한 양돈협회로부터 상기제목의 원고청탁을 받으니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다. 근 20년 전 내가 유학 중이던 독일 빈 수의과대학의 교문 수위아저씨는 어느날 갑자기 아주 엄격해졌다.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바퀴는 그 곳에 설치된 소독조를 통과해야 되고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탑승자도 일단 하차해서 신발에 소독물을 적셔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는 더우기 병리학 교실에서 일을 하니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약 150km 떨어진 곳에 구제역(FMD)이 발생한 것이다. 질병에 대한 이 얼마나 철저한 방역의식인가! 이 무서운 수포성 질병인 구제역도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언제 건너 올지 모를 일이며 휴전선 건너 한반도 땅인 이북에도 역시 발생이 안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두번째 예를 들어보자. 호주를 여행해 보신분은 공항에서 항상 경험하는 일이다. 그 철저한 소지품 검사들! 마약이나 귀중품 소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자기 나라 큰 대륙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차원에 라면 한봉지, 사과 한개도 철저히 압수하고 있다. 나는 2년 전에 그 곳 수의과대학 교환교수로 떠나기 전에 학술연구용 혈청을 휴대해 갖고 갈 일이 있었다. 그냥 갖고 가려고 했더니 사전에 그곳 교수가 조치해준 반입허가서 없이 들어오다간 큰 난리가 나며 구속될 수도 있다고 했다(우리나라에선 까다로운 절차에 해당 장관에까지 결재가 가야하니 그게 문제다).

작년과 금년에 걸쳐 호주 수의과대학 두 교수가 각각 내 교실에 얼마 동안 머물다 간 일이 있다. 영국 출신 한 교수는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았으나, 호주의 멜버른 출신인 퀸스랜드 수의과대학 병리과장 웨인 로빈슨 교수는 귀국일정이 다가오니 중요한 업무였던 농장방문을 한사코 마다했다. 자기들의 공항 입국시 검역절차상 최근에 농장을 방문했던 사실을 정직하게 통보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절차나 방역상 위험 부담때문이란단다. 사실 호주에는 돈 콜레라, TGE나 PED도, 오제스키병이나 광견병도 발생한 적이 없다.

이상 방역과 관련된 세가지 예를 들어 보면서 나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방역의식은 어떤 수준인지 자문해 본다.

최근 확산되는 가축질병으로 축산업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정부는 올해 가축방역 사업에 약 67억원을 투입하는 등 가축질병 방제대책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금 경기도 이천 소재 대규모 종돈장 3군데에서는 돼지 오제스키병이 집단 발생하여 국내 방역체계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차제에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국내에 발생되고 있는 돼지 질병은 다양하다.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돈콜레라 및 돼지 수포병 같은 몇 개의 질병을 제외하고는 질병 교과서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질병을 내 교실의 병성감정 중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나와 같이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연구하는 병리학 교수에게는 아주 좋은 여건이어서 신나는 일이다. 그러나 양돈산업 생산성의 약 20~30%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라 하니 질병에 방을 위한 방역체계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만 한다.

첫째, 학계에 몸담고 있는 나같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정부기관의 가축위생 분야 관련 공무원, 그리고 양축업자 자신들은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깨고 대단한 의식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무리 철저한 검역을 통해서 해외 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기능이 강화된다고 해도 이는 100% 완벽할 수는 없는데 양축가들은 마구잡이로 종돈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돼지의 몸뚱아리 어디엔가는 각종 병원체가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값비싼 비용을 들여 수입하다보니 외화 낭비가 수반되고 육종 분야 학계는 연구 열기가 시들어 질 수 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PED며 오제스키병 등 모두가 값비싸게 치루면서 수입한 해외 전염병들이다.

양축가들의 자세에 대해서 더 지적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양돈장에 전염병이 계속 번지고 있을 때 연구소나 학교와 같은 전문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질병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말이다. 이유야 어떻든 대부분의 양축가들은 이를 쉬쉬 숨기면서 자체 해결하려다 급기야는 커다란 피해를 받게 되고 인근 농장으로 똑같은 질병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 같은 학계 연구자들은 더욱 지적 받아 마땅하다. 당신들은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공부하며 돼지 질병 연구에 헌신했는가 말이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산업체와 접촉하며 양돈장을 누비고 땀 흘려 열성 부렸는지 말이다. 연구하며 취급했던 병원체의 도입이나 관리에 규정대로 많은 주의를 기울였으며 법정 전염병은 철저히 신고되도록 적극적이었는지 말이다.

정부 기관 방역 관련 공무원들의 자세도 꼬집자. 여러분들은 업무 처리에 무사 안일하고 형식적이며 적당주위로 흘러 보낸 적이 없는가? 법정 전염병 발생 보고에 숨김은 없었던 말인가! 인·허가 사항의 민원 업무에 항상 청렴 결백한 자세로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이다. 왜 양축가들이 질병 발생 신고를 기피하고 공무원들의 출입을 싫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온갖 노력을 해 봤는지 말이다.

동물 약품 업계나 백신 제조 업계 여러분들도 차제에 반성할 것은 없는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오직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면서 양질의 제품 생산에는 게으름 피우지 않았는지, 어떤 업무 처리 추진에는 판리들과 항상 떼땀할 수 있었으며 신제품 개발 투자에 적극성을 보였는지 말이다.

양돈업의 생산성을 저해시키는 질병 문제를 해결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요새 사육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는 MEW, MMEW, SEW방식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적은 국토 면적에서는 그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돼지 질병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육 방법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관련 업계 모든 사람들의 진지한 반성과 함께 지금까지의 타성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사고로 의식 전환을 하는, 자기 변혁에 열성을 보일 때 그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한다.